

## TCFD

SK네트웍스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TCFD는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투자, 신용 및 보험 인수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자발적인 기후 관련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2017년 6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을 수립하였습니다. TCFD 권고안은 탄소 관련 정보를 재무 공시자료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 기업의 고도화된 정보공시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SK네트웍스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CFD 권고안을 반영한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		보고 위치
거버넌스	a)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 활동 설명	28-31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28-31
전략	a) 단기·중기·장기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설명	32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전략·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33-37
	c) 2°C 이하 시나리오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 전략의 유연성 설명	38-39
위험 관리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설명	40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설명	40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는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에 통합되는 방법 설명	40
지표 및 목표	a)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40-41
	b) Scope 1(직접 배출), Scope 2(간접 배출) 및 Scope 3(기타 간접 배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위험 공개	40-41
	c)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와 목표 대비 성과 설명	40-41

중대 이슈 1

# 기후변화 대응

## 1 거버넌스

SK네트웍스는 이사진과 자회사 포함 경영진, 임원, 실무진에 이르는 전사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대한 이슈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시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추진 전략을 검토합니다. ESG경영위원회는 2023년 총 8회 개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 토의하였습니다. 향후 ESG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측면의 미래성장전략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 2 전략

### 2-1. 영향/위험 및 기회 식별



#### 환경/사회적 영향

구분	속성	영향	발생가능성	심각성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기여	Mid	High
	비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을 위한 안정된 전력 공급	Low	High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금/부정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High	Mid

#### 재무적 영향

구분	속성	리스크 및 기회	발생시점*	심각성
에너지 사용	비재생에너지	리스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기회: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단기	High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리스크: 이해관계자 우려 증가 (외부 평가기관·고객사의 기후변화 관련 요구사항 강화) 기회: 다양한 대외 인증 획득 및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단기	Mid

\*단기 : 3년 이내, 중기 : 3년~5년, 장기 : 5년 이후

## 2-2. 전략 및 대응 현황

SK네트웍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저탄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21년 6월 Net Zero 2040을 선언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Net Zero 달성을 위해 과학기반 감축 목표안을 SBTi에 제출하여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SK네트웍스는 수립된 Net Zero 2040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31년까지 46.2%, 2040년까지 95% 감축하여 파리협약 1.5°C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SK네트웍스의 배출량은 물론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31년까지 27.5%, 2050년까지 9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대응 현황**

- 2040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 태양광 설비 투자, 녹색프리미엄 구매, PPA 등
- 2030 EV 100% 전환 (EV100) - SK네트웍스 및 자/손회사(총 8개사) 자동차 약 22만대 대상
- 기후변화 관련 투자 - AI, 대체가족, 스마트팜 선제적 투자

## 3 위험 관리

SK네트웍스는 TC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식별하여 평가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우로 인한 사업장/자산 침수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법적 규제, 고객 선호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 이슈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수익 변화, 사업장 운영관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재무적/전략적 영향을 파악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극한 기온 등의 물리적 리스크와 법/제도적 규제, 평판 등의 전환 리스크를 대상으로 식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기후변화에 따른 8대 물리적 리스크 발생 시, SK네트웍스 및 자회사 주요 유형 자산의 손실을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t Zero 2040 선언 및 RE100, EV100 로드맵 추진</li> </ul>

## 4 지표 및 목표

- Scope 1, 2 및 3 관리
- Scope 1, 2 : 자/손회사를 포함한 전 사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리 및 제3자 검증 실시
- Scope 3 : 13개 카테고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완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그룹 ESG 핵심지표 정량화 기반 CEO 및 경영층, 자회사 대표 KPI 반영

#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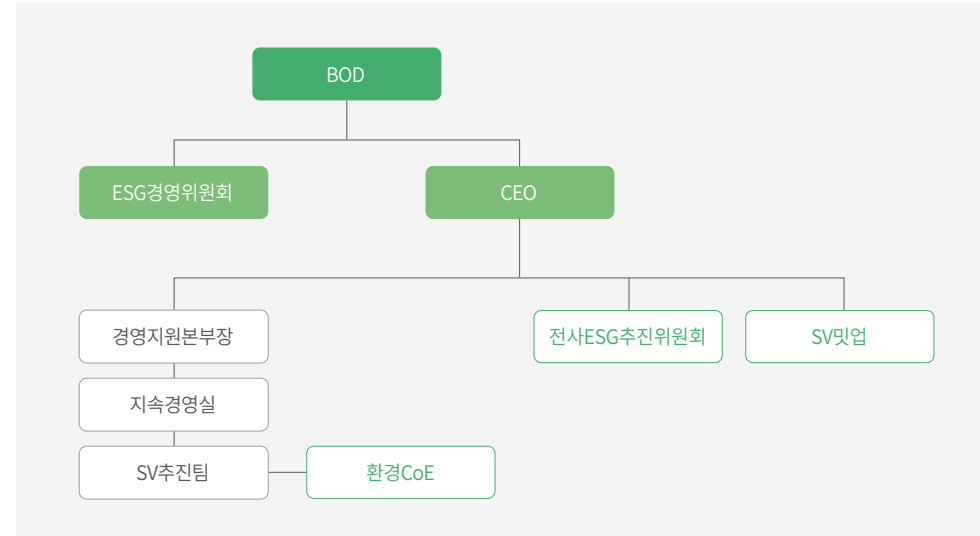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감축 조치를 가속화하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기상 현상이 전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지속적인 추세’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회복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SK네트웍스는 과학적 수단을 통해 고안된 목표 및 솔루션과 함께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지합니다. 혁신을 통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요 기후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대응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전사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경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K네트웍스는 이사진과 자회사 포함 경영진, 임원, 담당, 실무진에 이르는 전사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ESG경영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됐으며, ‘그룹 ESG 핵심지표 성과’ 등의 ESG 관련 안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심의, 토의했습니다. 앞으로 ESG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측면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여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2024년 상반기 조직도 기준

(2023년 12월 말 기준)

위상	조직명	구성	구성원	역할	2023년 개최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이사회 멤버 -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 (사내이사) 이호정, 최성환 • (기타비상무이사) 이성형 • (사외이사) 하영원, 임호, 정석우, 이문영, 채수일	• 환경, 사회적 가치 및 회사의 거버넌스와 관련 전략 및 주요사항 검토/분석으로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사항 사전 심의	8회
전사 경영층 회의체	전사ESG추진위원회	CEO, 사업총괄사장, 지속경영본부장(위원장), 기획재무본부장, 기획담당, 재무담당, HR담당, 감사담당, SV담당(간사), 자회사 대표 및 BU장	• (CEO) 이호정, (COO) 최성환 • (SK매직 대표) 김완성, (SK렌터카 대표) 황일문, (SK네트웍스서비스 대표) 전형일 등	• ESG 전략 실행력 강화 • BM 전략(자회사 포함)과 ESG 방향성 연계 • ESG 경영 활동 점검 및 논의	5회
	SV팀업	CEO, 지속경영본부장, SV담당, 사업별(자회사 포함)SV/ESG 담당 임원/팀장/실무자, 전략팀원, SV추진팀	-	• 사업별 SV 중점 추진과제 및 진행 현황 공유 • SV/ESG 트렌드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이해관계자 참여 진행사항 공유	10회
실무진	환경CoE*	사업별(자회사 포함) SV/ESG 담당 실무자, SV추진팀	-	• Net Zero 2040 추진(감축방안 도출) 데이터 측정/분석 • 사업별 환경경영체계 내재화 및 전문성 확보	3회
	SV담당 SV추진팀		-	• Net Zero 2040 추진 실무 조직 • 국내외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운영 • 환경 데이터 측정/분석	-

\*CoE(Committee of Experts) 전문가 위원회

## 이사회의 역할

SK네트웍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회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의 직무 집행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K네트웍스는 ESG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3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22년 5월부터 이사회 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대한 이슈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시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을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전략을 검토합니다. 이사회는 석유제품 소매사업 매각(2020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투자 승인(2022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그룹 ESG 핵심지표 성과와 Net Zero 추진 현황을 토의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관련 2023년 이사회 안건 현황

회차/일자	안건	세부내용
4회차(05.08)	2023년 CEO KPI 수립의 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그룹 ESG 핵심지표 반영
10회차(12.14)	SK일렉트릭(주) 증자 참여의 건 등	EV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SK네트웍스는 ESG경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돕고, ESG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2023.4.7	채수일	• 신임 사외이사 워크숍 - Net Zero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포함
2023.4.14	채수일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거버넌스, ESG, 글로벌 경영 이슈 등 주요 Insight 공유
2023.6.23	하영원, 임호, 정석우, 이문영, 채수일	• SK네트웍스 Financial Story 방향성 - 2023년 SK네트웍스 이사회 평가(안) 등 공유
2023.10.31	하영원	• 2023 Directors' Summit - 국내 주주 소통 이행 및 공시 의무화 안내 - ‘전략’ 관련 논의에서 이사회의 ‘목표 수립 시 ESG 우선 순위’ 고려 사례 논의

## ESG경영위원회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모든 이사회 멤버가 ESG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사내이사 2인(CEO, COO 포함)과 사외이사 5인(이사회 의장 포함, 기타비상무이사 1인, 총 8명의 이사회 멤버가 ESG경영위원회 위원입니다. 2023년 총 8회 개최된 ESG경영위원회는 ESG 이슈 관련 정기적인 현안을 보고 받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환경적, 사회적 이슈와 지배구조 관련 전략을 검토하고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채널로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ESG경영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그룹 ESG 핵심지표 분기별 성과, SK일렉트릭(주) 증자 참여 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ESG경영위원회 주요 안건

구분	회차/일자	안건	세부내용
2021	1회차(06.18)	• SK네트웍스의 과거와 현재, Value-up 방향성	• Net Zero 2040 추진(案)
	3회차(07.29)	• 민트사업부 현물출자의 건	•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환경적 가치 창출 확대
2022	4회차(03.08)	• 2022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Net Zero 2040 실행력 강화, SBTi 참여 등
	5회차(04. 28)	• 2022년 CEO KPI 수립의 건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그룹 ESG 핵심지표 반영
	6회차(08.19)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투자 승인의 건	• EV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2023	6회차(09.18)	•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그룹 ESG 핵심지표 2023년 2Q 성과	• 그룹 ESG 핵심지표 2Q 성과 요약 및 연간 개선 계획/Net Zero 추진현황 (감축 이행 실적)
	8회차(12.11)	• SK일렉트릭(주) 증자 참여의 건 등	• EV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 전사ESG추진위원회

SK네트웍스는 경영진과 자회사 대표가 참석하는 전사ESG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추진 전략 수립 및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층이 참석하는 전사ESG추진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8인 외 3개 자회사 대표 및 워커힐 총괄도 배석하며, 기후변화 관련 이슈 및 동향, 이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 요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2023년에는 그룹 ESG 핵심지표 평가 대상을 자회사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내부탄소가격제도, 협력사 ESG 관리,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분석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SK네트웍스 전사 및 자회사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전사ESG추진위원회 주요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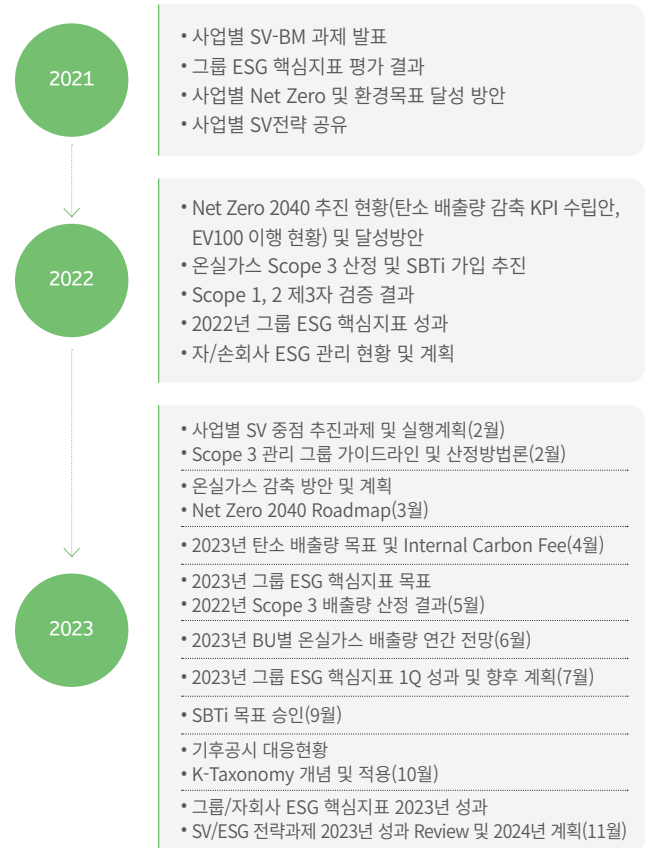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 SV및업 및 환경CoE

ESG 이슈를 다루는 전사 협의체인 SV및업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Net Zero 2040 선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가속화, 환경경영 강화 및 사내 환경 전문가 양성을 위해 환경CoE를 신설하고, SV및업과 함께 격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Scope 3 산정방법론 및 결과, Net Zero 2040 로드맵, BU별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전망, SBTi 목표 승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과제 및 진행 현황 공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SV및업 및 환경CoE 안건



## 기후변화 대응 경영진 보수연계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 독려를 위해 2019년부터 대표이사 KPI에 SV/ESG 항목을 포함하여 성과 평가 및 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SK네트웍스는 KPI에 그룹 ESG 핵심지표 성과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하였습니다. SK네트웍스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KPI에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CEO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금전적 보상 기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경영진 KPI

구분	목표	배점
CEO	Net Zero (온실가스 감축) - 2023년 목표배출량 (45,154톤)	3%
	그룹 ESG 핵심지표 목표 달성 - 목표 달성도 평가 점수 5점 획득 (5점 만점)	3%

**대표이사 KPI**

2023년 ESG 항목 총 10% 반영  
 ①탄소배출량 감축 ②그룹 ESG 핵심지표  
 ③건강하고 행복한 기업문화 구축 ④윤리경영  
 (2023년부터 윤리경영 항목은 신규 추가)

**사내 전 임원 KPI**

2023년 탄소배출량 감축을 포함한 ESG 항목 총 10% 반영  
 ※ 조직 특성에 따라 ESG 과제를 전략과제로 추가 반영.  
 ESG 항목 반영 비중이 10% 이상인 조직 있음  
 (e.g. 지속경영본부 산하 조직 등)



# 전략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

### 중대한 재무적/전략적 영향 정의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가 SK네트웍스에 미치는 중대한 재무적 영향과 전략적 영향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식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재무적 영향을 판단하는 지표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 등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무적 영향의 판단 기준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1.5%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입니다. 이러한 이슈 발생시, SK네트웍스는 해당 이슈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중대 이슈로 분류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영향을 고려한 주요 의사결정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투자 승인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였습니다.

중대한 전략적 영향을 판단하는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전략적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와 Net Zero 2040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전략적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SK네트웍스는 IT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표를 관리하여 매월 업로드하고 KPI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향에 따른 투자로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의 물류센터 2개소에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해 25.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재무적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해당 투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성 물리적 리스크(극한기온)와 전환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기 때문입니다.

### 리스크 및 기회 분석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식별하고 평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우로 인한 사업장 및 자산 침수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법적 규제, 고객 선호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이러한 기후변화 이슈로 인한 수익 변화, 사업장 운영관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를 재무적 및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기회 및 대응 방향

구분	유형	대분류	세부 리스크 / 기회	기간	재무적 영향	대응방향
리스크	물리	급성 물리적 리스크	폭우 침수	단기/중기	약 USD2.74M~약 USD2.87M (2020년~2030년까지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기후변화 리스크 발생 매뉴얼 수립</li> <li>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재산종합보험에 가입 완료</li> </ul>
		만성 물리적 리스크	극한기온	장기	약 USD11.98M~약 USD12.57M (2020년~2030년까지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li> <li>작업장 내 냉방 설비 운영, 혹서기 업무 가이드라인 배포 등</li> </ul>
	전환	정책 및 법률	현규제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단기	최대 1천만원(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제3자 검증 및 정부 제출(워커릴)</li> </ul>
			새로운 규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확대	단기/중기	약 66억원~약 74억원(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재무영향 임팩트 2030년까지 산정</li> <li>Net Zero 2040 선언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li> </ul>
		평판	ESG 정보 공개 요구 증가	단기	기업 가치 부정적 영향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지분 보유율 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DP 자발적 참여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li> <li>Net Zero 2040 적극 추진</li> <li>가치사슬 Scope 3 산정/SBTi 검증 완료</li> </ul>
			그린워싱 등 기후변화 관련 소송 증가	단기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차량 구매 목표제 2년 연속으로 초과 달성</li> <li>기후 관련 법적 문제 잠재적 영향 및 가능성 평가</li> </ul>
		기술	친환경 기술 개발 필요 증가	중기/장기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 최대 61%까지 절감 공기청정기 출시(SK매직)</li> </ul>
		시장	전기차 시장 확대	중기/장기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연기관 차량 EV 전환</li> </ul>
기회	전환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 기술 개발 : 민티 신규 BM 개발	중기/장기	신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민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 휴대폰 활용 사업 브랜드 '민티' 론칭 및 운영</li> </ul>
		시장	전기차 수요 증가	중기/장기	1,531억원~1조 4,053억원(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V 100% 전환 목표 설정(EV100)</li> <li>자회사 SK일렉트릭 설립</li> </ul>
			SK렌터카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 외부 사업	중기/장기	약 124억원~약 151억원(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종합 관리 솔루션 'EV 스마트링크' 개발</li> </ul>

\*시간적 기준 정의 - 단기 : 1년 이내, 중기 : 1년~5년, 장기 : 5년 이후

## 주요 리스크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물리적 리스크

### 급성 | 극한 호우로 인한 폭우 침수 피해 대비



**현황** SK네트웍스는 한국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의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에 따라 산출된 신규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예측한 한국 기후 전망값과 SSP2-4.5 시나리오, SSP5-8.5 시나리오를 주요 가정으로 사용하여 물리적 리스크/기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전반기(2021년~2040년)에 한반도 강수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호우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향**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기후 모델링과 계량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자산 가치 손실액을 평가하는 S&P Climanomics를 통해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 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주요 유형 자산은 물리적 위험 중 만성 물리적 리스크인 극한 기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나왔으며, 급성 물리적 리스크 중에는 극한 호우로 인한 폭우 침수(Pluvial Flooding)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폭우 침수로 인해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주요 유형 자산은 매년 자산가치의 약 0.25%~약 0.26%가 상대 위험(Relative risk)에 노출 되며, 이로 인한 자산가치의 예상 손실액은 매년 약 USD2.74M~USD2.87M\* 입니다.

\*SSP2-4.5 시나리오 - 상대 위험 : 0.25% / 현재 자산가치 대비 예상 손실액 : USD2.74M,  
SSP5-8.5 시나리오 - 상대 위험 : 0.26% / 현재 자산가치 대비 예상 손실액 : USD2.87M

**대응** 시나리오 분석 결과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주요 유형 자산에서 태풍, 홍수 등의 기후 현상으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왔음에도 SK네트웍스 SHE 조직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 내 기후변화 리스크(풍수, 폭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리스크 발생 시 재무적 영향 감소를 위해 전국 주요 사업장(물류센터 등)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 만성 | 극한 기온으로 인한 추가 에너지 사용



**현황** SK네트웍스는 한국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의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에 따라 산출된 신규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예측한 한국 기후 전망값과 SSP2-4.5 시나리오, SSP5-8.5 시나리오를 주요 가정으로 사용하여 물리적 위험/기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전반기(2021년~2040년)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물론,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향**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기후 모델링과 계량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자산 가치 손실액을 평가하는 S&P Climanomics를 통해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 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주요 유형 자산은 물리적 위험 중 극한 기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극한 기온으로 인해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주요 유형 자산은 매년 자산가치의 약 1.09%~약 1.14%가 상대 위험(Relative risk)에 노출 되며, 이로 인한 자산가치의 예상 손실액은 매년 약 USD11.98M~USD12.57M\*입니다.

\*SSP2-4.5 시나리오 - 상대 위험 : 1.09% / 현재 자산가치 대비 예상 손실액 : USD11.98M,  
SSP5-8.5 시나리오 - 상대 위험 : 1.14% / 현재 자산가치 대비 예상 손실액 : USD12.57M

**대응** SK네트웍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로 고객 수요 감소 및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고, 이는 SK네트웍스의 매출 감소 및 운영 비용 상승 등의 재무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SK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의 자회사는 주요 사업장 5곳에 총 약 43억원을 투자하여 자가소비 및 발전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내역 : 자가소비 30억원/발전사업 13억원)

주요 리스크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전환 리스크 - 정책 및 법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 현 규제



**현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정 기준 이상인(50,000 tCO<sub>2</sub>eq 이상 업체, 15,000 tCO<sub>2</sub>eq 이상 사업장)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SK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의 자회사 중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워커히 호텔 사업장입니다.

**영향** 해당 규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응** SK네트웍스는 해당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워커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제3자 검증은 받아 배출량 산정 자료를 정부에 제출 중입니다. 2023년 SK네트웍스 워커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016 tCO<sub>2</sub>eq로, 현 규제를 준수하고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위험평가 리스크에 현규제를 포함하여 식별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SK네트웍스는 2022년 9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하였고, 2023년 9월, SBTi로부터 단기 목표와 Net Zero 목표를 승인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확대 | 신규 규제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입니다. SK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의 자회사는 현재 해당 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인 워커히의 경우,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량 측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향**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규제는 SK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의 자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4차 계획기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26년 SK네트웍스가 해당 규제에 적용 받을 경우 약 66억원에서 약 74억원<sup>1)</sup>의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응** SK네트웍스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대비하여 이로 인한 재무영향을 2030년까지 산정하여 대응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Net Zero 2040을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 활동으로는 SK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의 자회사의 설비 교체 및 개선, 전기차 구매, 자가발전 시설 설치 등입니다. SK네트웍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동안 예상되는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 비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각 사업부와 모든 자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비용은 총 62.1억 원이 예상됩니다.

1) 최소 : (SK네트웍스 배출량 - 무상할당량)\*탄소가격+감축비용-태양광패널 설치로 인한 이익 개선분 = 66.16억원  
 최대 : (SK네트웍스 배출량 - 무상할당량)\*탄소가격+감축비용-태양광패널 설치로 인한 이익 개선분 =74.41억원  
 \* 탄소가격 : 최소 62,143원 ~ 최대 104,335원  
 최소 : 가격은 IPCC 1.5 (World) 시나리오 가격 참고  
 - 2026년 탄소 가격은 현재 배출권 가격에서 IPCC가 전망하는 30년 가격까지 선형 증가를 가정  
 - 2023년 탄소가격 11,250원, 2030년 탄소 가격 130,000원 / 환율 1,300원 적용  
 최대 : 가격은 GCAM 5.3+ NGFS(South Korea) Net Zero 2050 시나리오 가격 참고  
 - 2026년 104,335원 (USD 80.3 / 환율 1,300원 적용)



## 주요 리스크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전환 리스크 - 평판

### 기후변화 관련 소송 대응



**현황**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341건의 기후 변화 소송이 확인되었고 그중 190건은 최근 12개월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해 항의하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향** 정부가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구체적 절차와 정책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묻는 법률조항이 없지만, SK네트웍스와 자회사 중 B2C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린워싱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고객 이탈로 인해 큰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응** 그린워싱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SK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의 자회사들은 기후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SK네트웍스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이행하기 위해 워커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아 배출량을 산정한 자료를 국가에 제출 중입니다. 또한 SK네트웍스는 친환경차량 구매 목표제의 목표를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3년 SK네트웍스의 친환경차량 구매 비중 실적은 114%로 해당 규제 목표인 22%를 5배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그 외 다른 규제에 의해 소송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측면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전사ESG추진위원회를 통해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기후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법적 문제의 잠재적 영향과 가능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사ESG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지속경영실장은 기업의 모든 법무 리스크 및 기후변화 관련 법적 내용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 기후변화 관련 비재무 정보 공개 요구 증가



**현황** SK네트웍스는 Net Zero 2040 선언을 하고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비재무(ESG)공시의 국제 표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공시 방법과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기업 매출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영향** 2021년 독일의 자산 관리사인 D사의 경우, 그린워싱 이슈로 인해 하루만에 주가가 15% 급락하여 11억 유로 상당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 정보와 같은 비재무 정보 공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기업 가치 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 철회 및 주가 하락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투자 철회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등) 특히, 최근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SK네트웍스의 주요 대주주이기에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응** SK네트웍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에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CDP에 자발적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SK네트웍스는 ISSB 등 새로운 공시기준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요구와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기업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Net Zero 2040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을 포함하여 산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측정된 결과에 기반하여 감축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SBTi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 주요 리스크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전환 리스크 - 기술

### 청정기술 개발



**현황**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Net Zero 선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고객의 친환경 제품 선호 증가로 인해 SK네트웍스와 자회사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청정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향** 한국경제신문의 2023 ESG 브랜드 조사 결과, ESG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76.2%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소비자는 전체소비자의 72.8%로 나타났습니다. SK네트웍스 자회사 중 B2C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업은 이러한 소비자 및 고객의 변화에 발맞춰 기술 개발을 못할 경우, 미래에는 고객 선호도 변화로 인한 고객 이탈로 인해 큰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응** 국내 최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인 SK네트웍스는 버려지는 휴대폰 속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 기회를 봤고,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 인공지능 기반의 중고 휴대폰 재활용 사업 브랜드 '민티'를 론칭했습니다.

또한 SK네트웍스 자회사 중 대표 B2C 사업을 하고 있는 SK매직은 이러한 고객의 변화에 발맞춰 청정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2023년 총 10개의 신규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SK매직은 울콜린 공기청정기 그린 시리즈(Virus Fit, 242, 267, 285)를 개발하여 기존 자사 동급 모델 대비 소비전력과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을 최대 61%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내-외장재 모두 친환경 소재 적용을 통해 동일 평수의 일반 제품 대비 해당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며 약 50% 수준의 탄소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없이 수압만으로 정수가 가능한 친환경 무전원 정수기 '에코미니 정수기 그린41'을 출시했으며, 국내 최초로 인버터 제어 방식의 BLDC 컴프레서를 적용한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는 기존 제품 대비 월간 소비 전력량을 61%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리스크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전환 리스크 - 시장

### 전기차 시장 확대로 전기차 수요 증가



**현황**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Net Zero 선언과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00만대로,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매킨지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4천만 대로 전망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친환경차량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24.3% 증가한 55만 8,112대로 전체 판매 비중의 31.9%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차 판매의 약 30% 이상이 친환경차량인 한국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할 경우, 모빌리티 사업이 주요 사업인 SK네트웍스의 자회사 SK렌터카는 제품 및 서비스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응** SK렌터카는 내연기관 차량을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SK렌터카는 2023년 총 15,913대의 친환경차량을 보유 중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20만 대의 보유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환경부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과 The Climate Group의 「EV100」에 가입하여 EV 전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회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제품 및 서비스

### ‘민잇’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SK네트웍스는 버려지는 휴대폰 속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 기회를 봤고, 2019년 재활용 사업 브랜드 ‘민잇’을 론칭하였습니다. 민잇은 인공지능 기반의 중고 휴대폰 재활용 사업으로, 민잇은 중고폰 재활용 및 기부 등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희귀자재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민잇은 중고폰을 재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자원 사용, 탄소 배출 및 폐기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환경 가치를 창출합니다. ‘민잇 ATM’은 개인정보 유출 없이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거래 환경을 제공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잇은 2023년 약 81만대의 중고폰을 수거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중고폰 재활용에 대한 고객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요 기회 실현을 위한 전략 및 비용 산정 설명

민잇은 ATM을 통해 중고폰을 수거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ATM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잇은 지금까지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ATM 6,22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2025년부터는 노후 ATM을 저전력 ATM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잇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 삭제와 상태 판단 기술로,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중고폰을 투명한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민잇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잇이 현재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모두 30건이며 이 중 ‘중고폰 가치평가를 위한 외관 촬영 분석 시스템’, ‘휴대폰 데이터 삭제 방식’ 등 14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민잇의 R&D 투자 비용은 2022년 13억원, 2023년 23억원이며, 광고홍보 비용은 2022년 30억원, 2023년 19억원입니다. 민잇의 총 관리 비용은 ATM 구매 금액, 기술개발비, 광고 홍보비를 더하여 총 약 355억원입니다.

## 주요 기회에 의한 재무영향 분석 | 시장

### 전기차 수요 증가 및 SK렌터카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 외부 사업



한국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대상 친환경차량 구매 목표제가 확정/시행되었습니다. EU와 미국 등 각국의 친환경차량 규제 및 정책으로 친환경차량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은 SK네트웍스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SK네트웍스의 자회사인 SK렌터카는 EV 100% 전환을 주요 경영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EV100’에 가입했습니다.

### 재무적 영향

SK렌터카의 2023년 12월 말 기준 친환경차량은 15,913대이며, SK렌터카의 매출액 1조 6,804억원 중 친환경차량으로 인한 매출은 1,53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11%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내연기관 차량을 통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SK렌터카 매출액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전기차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실측하기 위하여, SK렌터카는 자동차 종합 관리 솔루션 ‘스마트링크’를 기반으로 전기차에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V 스마트링크’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SK렌터카는 보유 차량에 대한 전기차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을 획득할 것이며 새로운 규제에 의한 시장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EV100에 가입하고 보유 차량 전체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2030년 렌털료 외 추가 수익 최소 약 124억원에서 최대 15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적 영향 : 2030년 운행 예정 전기차량 중 EV스마트링크 장착 차량 약 20만대 X 전기차 1대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X 2030년 예상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 = 124억원에서 최대 151억원

### 주요 기회 실현을 위한 전략 및 비용 산정 설명

2030년에 운행 예정인 23만대를 기준으로 현재의 전기차 대당 평균 가격 5천만원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SK렌터카가 전기차 구매에 투입하는 금액은 약 11.5조 원입니다. 친환경차량 전환을 위해 SK렌터카는 2021년 2월 980억원 규모의 첫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차량 화석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계획서」 제출 및 환경부 인증을 통해 24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2021년 2,251대, 2022년 647대의 친환경 전기차 구매에 전액 사용되었으며, 2022년도 구매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연간 1,279톤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밖에도 SK렌터카는 2023년 3월 16일,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승용 차량 부문 「2022년 무공해차 전환 실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SK네트웍스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급속충전기 운영 업체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자회사 SK일렉 링크를 설립했습니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조건

SK네트웍스는 변화하는 환경 상황에 대응하고자 SK네트웍스의 감축 경로와 유사한 IEA NZE 2050<sup>1)</sup>, IEA B2DS<sup>2)</sup> 시나리오와 한국 기상청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물리적 시나리오 2종(SSP<sup>3)</sup> 2-4.5<sup>4)</sup>, SSP5-8.5<sup>5)</sup>)을 선택하여 분석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Net Zero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방향성 전환을 위해 전환 시나리오 및 물리적 시나리오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혼합하여 시행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전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SK네트웍스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로 이사회 승인과정을 거쳐 SK네트웍스 본사 및 자회사의 Scope 1, 2, 3의 시기별 감축방안 및 감축 비용을 산정 하였습니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분석을 위해 SK네트웍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핵심 상품인 SK렌터카 전기차 전환 사업 비용 및 제주도 EV Park 구축 비용, 재생 에너지 전환 달성 계획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기후 모델링과 계량 경제모델을 활용하여 자산 가치 손실액을 평가하는 S&P Climonomics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국내 주요 유형자산 67개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네트웍스는 재무적 영향이 적은 저탄소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분석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중간 수준 시나리오인 SSP2-4.5 와 고탄소 시나리오인 SSP5-8.5를 주된 시나리오로 고려하여 재무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했습니다.

전환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IEA NZE 2050<sup>1)</sup>, IEA B2DS<sup>2)</sup>, NDC<sup>3)</sup></li> <li>• 시나리오 분석범위 전사</li> <li>• 시나리오 적용 온도변화 1.5도, 1.6-2도</li> <li>• 매개변수 거시경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사용량, 전기차 전환율 등</li> <li>• 가정 (1) 2030년까지 한국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의무 (2) 2030년부터 글로벌 승용차 판매의 60%는 전기차 한국은 2030년~2035년 사이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li> </ul>

1) IEA NZE 2050 : IEA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2) IEA B2DS : IEA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1.75°C로 억제 시나리오  
 3)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 SSP(공동사회경제경로, Shared Socioeconomic Pathway)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사용 등 미래 사회경제 지표의 정량적인 변화 내용을 포함하여 5개 그룹으로 구성  
 5) SSP2-4.5 :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하는 경우  
 6) SSP5-8.5 :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물리적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SSP<sup>4)</sup> 2-4.5<sup>5)</sup>, SSP5-8.5<sup>6)</sup></li> <li>• 시나리오 분석범위 전사</li> <li>• 시나리오 적용 온도변화 2.0~4.4°C 〈참고-AR6 WG1 지구 기온 상승 예측〉 SSP2-4.5 : 2.0~2.7°C (산업화 이전 대비 2.1~3.5°C) SSP5-8.5 : 2.4~4.4°C (산업화 이전 대비 3.3~5.7°C)</li> <li>• 매개변수 최고 기온, 폭염일수, 강수량 등</li> <li>• 가정 (1) SSP5-8.5 : 고탄소 시나리오.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 (2) SSP2-4.5 :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하는 시나리오.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미래를 가정하며, 경제와 인구 성장이 중간 수준으로 가정 (3)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에 한반도 강수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강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한반도의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현상은 증가하고, 한파일수, 결빙일수, 서리일수와 같은 저온관련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li> </ul>

### SK네트웍스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

SK네트웍스의 67개 유형자산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향후 20년간 유의미한 수준의 자산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10년간 67개 자산의 물리적 리스크 유형별 손실 발생확률은 2% 이하로 분석됐고, 또한 물리적 리스크 유형별 연간 자산 손실 예상액은 SK네트웍스 자기자본의 0.75%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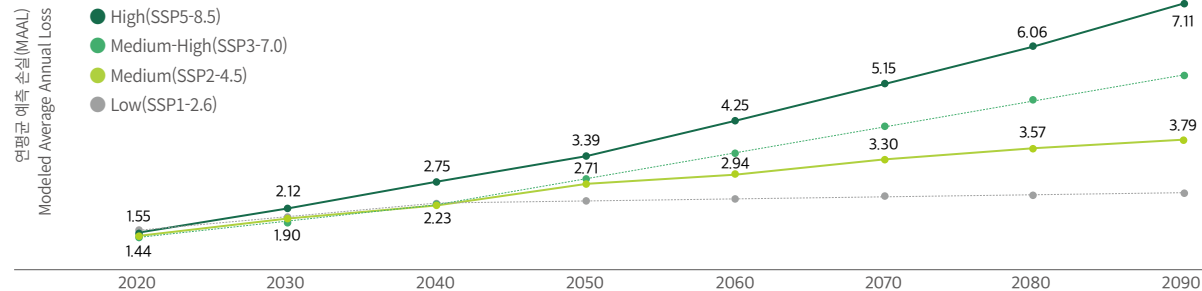
SK네트웍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리적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유형	물리적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2020년대			2030년대					
			시나리오	High	Mid	Low	시나리오	High	Mid	Low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기후 모델링과 계량 경제모델을 활용하여 자산 가치 손실액을 평가하는 S&P Climanomics를 통해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중요 유형 자산의 8대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 했습니다.											
극한기온 (Temperature Extremes)	극한 온도 발생 빈도의 변화 212.42866mm, Omms. 온도 극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변수의 관찰된 값 범위의 상한(또는 하한) 끝의 근처의 임계값 위(또는 아래)의 온도 변수의 발생으로 정의됩니다.	만성	SSP5-8.5				SSP5-8.5				
해안 침수 (Coastal Flooding)	다양한 규모의 해안 홍수 빈도의 변화. 극한 해안 고수위는 평균 해수면, 조수 및 지역 기상 시스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극한 해안 고수위 현상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준 기간 동안 관측소에서 관측된 해수면 값의 분포에 대한 더 높은 백분위수(예 : 90~99.9번째)로 정의됩니다.	만성	SSP5-8.5				SSP5-8.5				
가뭄 (Drought)	심각한 수문학적 불균형을 야기할 만큼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초래하는 가뭄 조건의 빈도 변화입니다.	급성	SSP5-8.5				SSP5-8.5				
산불 (Wildfire)	자산 위치의 기준 기간(1980-2000)과 비교하여 90번째 백분위수 산불 조건의 연간 확률 변화를 Climanomics®는 지역화된 기후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는 산불 지수를 계산합니다.	급성	SSP5-8.5				SSP5-8.5				
태풍 (Tropical Cyclone)	태풍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의 열대 저기압의 위치 및 강도 변화입니다. (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사이클론 규모의 교란을 통칭하는 용어)	급성	SSP5-8.5				SSP5-8.5				
물 부족 (Water Stress)	WRI 수로 물 스트레스 지수의 현재 값에서 2040년대 미래 값으로의 변화입니다.	급성	SSP5-8.5				SSP5-8.5				
하천 침수 (Fluvial Flooding)	1950~1999년의 역사적 기준선을 기준으로 100년 동안 하천 침수가 발생할 연간 확률입니다. 이 측정항목은 3개의 기후 변수와 4개의 지형 변수를 사용합니다.	급성	SSP5-8.5				SSP5-8.5				
폭우 침수 (Pluvial Flooding)	100년 홍수 깊이의 연간 빈도에 대한 하수 위험 지표와 관련된 역사적 기준 100년 강수량의 연간 빈도입니다.	급성	SSP5-8.5				SSP5-8.5				

\*평가 척도 : FY2022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Low : ~0.75%(~183.8억원), Mid : 0.75%~1.5%(183.8억원~367.6억원), High : 1.5%~(367.6억원~)

SK네트웍스 2020년~2090년대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단위 : %)



\*해당 그래프는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한 자산 67개의 예상 손실 규모 및 발생확률을 종합한 분석 결과 그래프임. 자산 각각의 예상 손실 규모와 발생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유의미한 수준의 자산 손실은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위험관리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식별·평가·대응하고 있습니다. SV추진팀 및 각 사업별 담당 부서가 상시 모니터링 통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매월 평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전사ESG추진위원회와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리스크 평가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연단위 대응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리스크는 경제 환경 지표들을 활용하여 식별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리스크는 중대성 평가와 글로벌 기후 모델링과 계량 경제모델을 활용하여 자산가치 손실액을 평가하는 S&P Climanomics 등의 Tool을 활용하여 재무적 영향도와 업무적 영향도에 따른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경영층 참여 전사ESG추진위원회와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전사 사업 전략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매년 갱신 중입니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는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예방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보완하였고, 매년 내/외부 심사를 통해 리스크 평가의 적합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중기/장기 기후변화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 등 새로운 내/외부 환경변화(규제, 시장동향, 물리적 환경 변화 등)를 반영하여 리스크를 식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별한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li> <li>각 부서 식별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영향 평가</li> <li>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 및 대응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와 경영층 참여 전사ESG추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 및 협의</li> <li>전사 사업 전략 수립 시 반영 운영 관리</li> </ul>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관리, 환경, 재해, 기후변화 대응 등 유형별 리스크를 식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기후 변화에 따른 8대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SK네트웍스 및 자회사의 중요 유형 자산의 자산 손실률을 도출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t Zero 2040 선언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투자 승인</li> </ul>

\*극한기온, 해안 침수, 가뭄, 산불, 태풍, 물 부족, 하천 침수, 폭우 침수

# 지표 및 목표

## 환경 지표 관리

SK네트웍스 지속경영실은 그룹 ESG 핵심지표 중 환경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 및 재활용,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등)를 매월 모니터링함으로써 전사적 환경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성 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전사ESG추진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목표 및 성과 관리

SK네트웍스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그룹 ESG 핵심지표를 정량화하여 CEO 및 경영층의 KPI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Net Zero 2040 달성을 위해 SBTi 가입 및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아 관리 중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EV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K네트웍스를 포함한 자/손회사의 업무용 차량과 SK렌터카 대여차량 전체에 대한 EV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사ESG추진위원회, 환경CoE에서 공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23년에는 업무용 차량 전기차 전환, 노후 설비 교체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을 통해 약 2,170톤을 절감하고, RE100 수단을 통해 약 3,526톤(자가발전 1,319톤, REC 79톤 등)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목표 배출량 대비 시장기반 배출량 기준 약 92%(지역기반 97%)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Net Zero 2040 달성을 위해 매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감축 방안을 점검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사ESG추진위원회 및 환경CoE & SV밋업 등을 통해 경영층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SK매직 화성공장 2021년 6월 70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정보통신사업부에서는 2022년 약 2MWh급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SK렌터카에서는 제주 빌리카지점에 60kWh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워커히에는 기존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포함해 주차타워에 약 30kWh 급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SK네트웍스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2,870M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1,319 tCO<sub>2</sub>eq를 감축했습니다.



## 탄소중립 로드맵

SK네트웍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저탄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21년 6월 Net Zero 2040을 선언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의 1.5°C 시나리오 목표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 후 목표를 제출하였고, 검증을 거쳐 2023년 9월 단기 목표와 Net Zero 목표를 승인받았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을 2031년까지 46.2% 감축하고, 2040년까지 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함께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을 2031년까지 27.5%, 2050년까지 90% 감축함으로써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Net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전기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간접 온실가스 배출로 전환하고, RE100을 달성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료 전환, 보유 차량 EV100 달성,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40 RE100 - 재생 에너지 전환 달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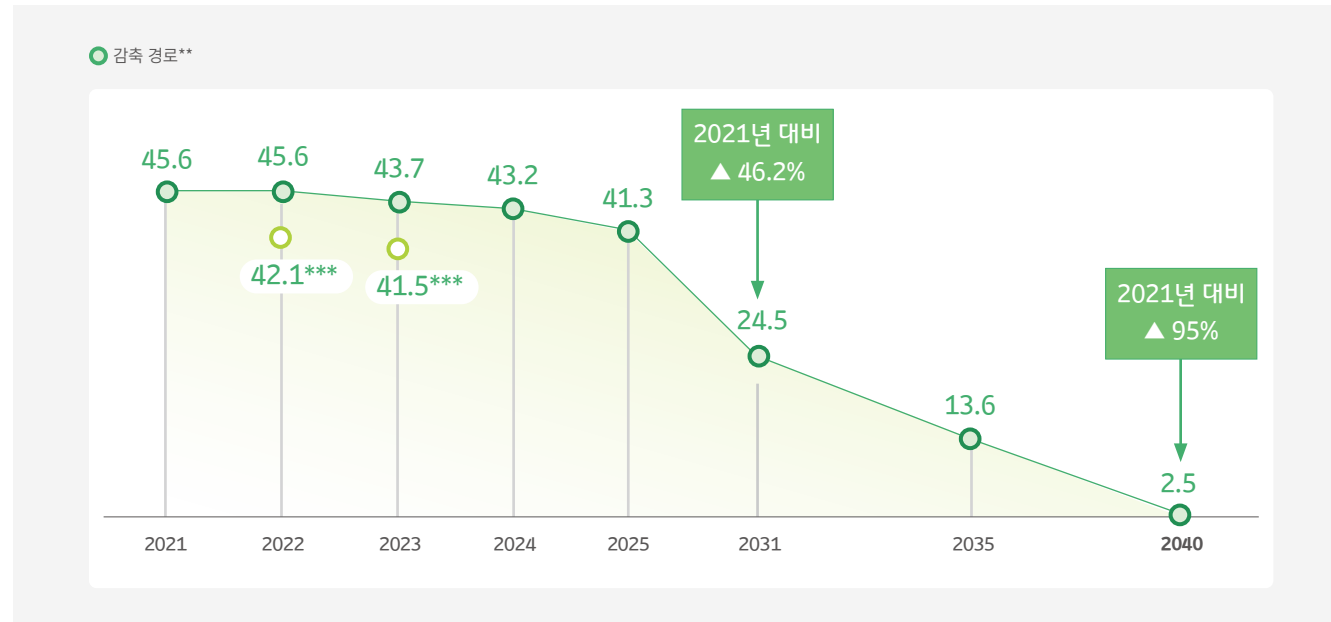
탄소중립과 함께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여, 녹색프리미엄\* 구매, PPA\*\* , 태양광 에너지 사용 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SK네트웍스는 주요 사업장 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자가 에너지 소비와 녹색프리미엄 구매, SK렌터카의 REC 소진 등의 활동을 통해 재생 에너지 전환 달성 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 기업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장기 계약을 맺어 일정량의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

온실가스 배출량\* 및 Net Zero 2040 시나리오

(단위 : 천 tCO<sub>2</sub>e)



\*SK네트웍스 및 자/손회사 포함 총 8개사 기준

\*\*Scope 1, 2 배출량(Scope 3 제외), 2021/2022/2023년은 실적 \*\*\*시장기반 배출량

2040 RE100 Roadmap

